

동지가 금속노조다!

# 대전충북지부

33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6년 10월 17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 콜텍 9년의 싸움 1년의 여의도 농성

###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보낸 1년

콜텍 동지들의 투쟁 장소가 여의도 새누리당 앞으로 옮겨진 지 벌써 1년이 됐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문닫았다는 악의적인 발언을 내뱉은 후 콜트-콜텍 동지들은 새누리당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김무성 전 대표와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콜트-콜텍 사태 해결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사과는 받았지만, 사태 해결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 부당한 정리해고 없애는 사회적 해결 필요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김무성 전 대표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냈다. 비록 자발적인 사과는 아니었지만, 법원의 판결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다. 사과 기자회견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콜트-콜텍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도 새누리당에서 콜트-콜텍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콜트-콜텍은 국내 최장기 투쟁사업장이다. 부당해고로 인해 너무 오랜 시간을 고통받았다. 집권여당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했다면 사태의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그러나 마지못해 사죄한 뒤로 감감 무소식이다. 콜트-콜텍 동지들이 사과를 받고도 아직도 여의도에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여의도 농성 1주년 투쟁 함께 합시다

그동안 한광호 열사투쟁과 임단협 투쟁 등으로 멀리 서울에서 농성하고 있는 콜텍 동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다. 농성 1주년을 맞아 25일 여의도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 문화제 등 1주년 맞이 투쟁이 벌어진다. 이 날은 기나긴 시간을 투쟁으로 보내면서도 언제나 당당한 콜텍 동지들과 함께 하자. 서울 여의도에서 콜텍 투쟁의 승리를 위해 다시 힘을 모으자.

## 경기지부 대창지회도 노조파괴 계획 드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노조파괴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유성, 보쉬 전장, 컨티넨탈, 최근의 갑을오토텍 뿐만 아니라 경기지부의 대창지회에서도 노조파괴 계획이 드러났다. 임금인상과 승진을 미끼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창지회는 4월 19일 설립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유령노조를 앞세워 교섭을 거부했다. 그 유령노조는 경기지노위에서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휴면노조 해산결정을 받았다. 그래도 대창자본은 지회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파괴를 추진했다. 관리자들을 이용해 지회 탈퇴하면 임금도 올려주고 승진도 시켜준다고 탈퇴를 종용했다.

금속노조는 20일 15시 안산의 대창지회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연다.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있는 대창자본에게 금속노조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 \* 이번주 일정 \*

- 10/17(월)
  - 19:00 충북 백남기열사 촛불집회 (청주 성안길)
- 10/18(화) : 양재동 농성
- 10/20(목)
  - 06:30 청주 공단선전전 (청주 성모병원 인근)
  - 07:00 대전 공단선전전 (PLA사거리)
  - 07:00 Y&T파워텍 선전전
  - 15:00 대창지회 결의대회 (대창지회)
- 10/21(금) 15:20 수석부지부장 항소심
- 10/22(토)
  - 10:00 금속노동자 한미당 (충북 문의 체육공원)